



(뒷줄 왼쪽부터) 장영은 공인회계사·수석 전문위원, 백선우 외국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김광의 전략그룹 PL, 장품 변호사, 정현찬 컴플라이언스팀 전문위원, 안중성 변호사, 권영환 변호사, (앞줄 왼쪽부터) 정민 기업경영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송정선 공인회계사·전문위원, 이준희 전략그룹장, 임성택 대표변호사·ESG센터장, 정영일 경영연구그룹장, 민창욱 변호사·컴플라이언스팀장, 이준길 고문, 송경훈 변호사.

# 규제 자문에서 대응 전략까지... 원스톱 ESG 솔루션 제공

법무법인 지평이 ESG센터를 출범한 것은 지난 2020년 9월의 일이다. 지평은 한국 사회에서 ESG가 하나의 흐름을 이루기 시작한 원년을 바로 이 시기로 보고 있다. 국내 ESG 태동기에 모습을 드러낸 조직인 셈이다. 이제 지평 ESG센터는 글로벌 시장에서 자리매김하는 ESG 컨설팅 조직의 미래를 꿈꾸고 있다

정초원 기자 ccw@hankyung.com

지평 ESG(환경·사회·지배구조)센터는 법률가뿐 아니라 전략 컨설턴트, 컴플라이언스, 인권경영,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이 협업해 원스톱 ESG 솔루션을 제공하는 조직이다. 변호사의 규제 자문 역량과 ESG 전문 컨설턴트의 경영전략 역량을 결합한 만큼 통합적 컨설팅 능력을 갖췄다는 것이 지평 ESG센터가 내세우는 가장 큰 강점이다.

지평 ESG센터는 2020년 출범 당시부터 임성택 대표변호사가 센터장을 맡아 조직을 이끌고 있다. 2021년 1월에는 이준희 ESG센터 전략그룹장이 합류했고, 같은 해 12월 정영일 경영연구그룹장이 영입되면서 본격적으로 ESG 경영 자문을 확대해나가기 시작했다.

### 각분야 자문팀과 유기적 협업

그동안 지평 ESG센터는 대기업, 글로벌

중견기업의 ESG 경영을 진단하는 것은 물론 전략 체계와 로드맵,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 모델 구축 등을 법무적 자문과 함께 통합적으로 제공해왔다. 지난해에는 ESG 등 비재무 영역을 포괄하는 컨설팅 그룹을 발족하고, 현대경제연구원, 코트라(KOTRA) 등으로부터 경제·통상 전문가를 추가로 영입했다.

현재 지평 ESG센터의 조직구조는 크게 전략그룹, 컴플라이언스팀, 경영연구

룹으로 나뉜다. 다만 환경그룹과 사회그룹, 거버넌스그룹, 금융그룹 등에 속한 여타 개별 팀의 역할까지 고려하면 ESG 조직의 범위는 훨씬 넓어진다. 지평이 다루는 자문 이슈는 필연적으로 ESG 담론이 얽히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이슈와 관련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자신의 소속 팀에만 매여 있지 않고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지평 ESG센터에 소속된 인원은 30명 안팎이지만, ESG 관련 이슈를 다루는 인력은 100명을 훌쩍 넘어선다. 지평 관계자는 “하나의 ESG 이슈를 매개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협력하는 방식”이라며 “이 같은 협업을 통해 ESG 경영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타사와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다. 서로 다른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가 모여 윈스톱 ESG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림은 ESG센터 출범 초기부터 지평이 생각했던 청사진이다.

### 센터 내 기업경영연구소 설립

지평은 지난해 ESG센터 내에 기업경영연구소도 설립했다. ESG 시장의 흐름과 제도 변화를 연구·교육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지평의 ESG 싱크탱크다. 한마디로 ESG 경영과 ESG 생태계를 연구개발(R&D)하는 조직으로, ESG 관련 정책, 사례, 방법론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트라의 글로벌 ESG 통상정책과 규제 동향 연구 용역을, 국무조정실의 ESG 경영 활동과 연계한 민간 참여(PSE) 모델 구축·컨설팅을 수행했다. 아울러 기업의 ESG 공시와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 인권

## Interview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ESG센터장



## “최근 주목할 ESG 과제는 공급망·인권·통상”

### 센터 출범 이후 국내 ESG 환경은 어떻게 달라졌나.

“큰 변화가 있었다. 많은 기업이 ESG 경영을 시작했다. 몇 년 전처럼 큰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인권, 안전, 소비자 등 ESG의 각론으로 나아가는 것 같다. ESG 분야가 훨씬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

### 글로벌 경기 위축이 ESG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나.

“결국 ESG를 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책임 맥락에서 보면 ESG는 경기 침체에 비용을 쓰는 부담스러운 일이 된다. 반면 새로운 시장을 찾는 관점에서는 ESG 경영을 잘하는 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리스크 측면을 더 고려한다면 ESG 경영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겠지만,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려면 오히려 ESG 경영을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이런 고민이 기업의 ESG 경영을 좀 더 내재화하도록 만

든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 기업도 이제는 ESG가 생존 문제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 최근 주목하는 ESG 분야 과제는.

“공급망과 인권, 통상이다. 공급망의 경우 과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과 협력, 공정거래라는 관점에서만 다루졌다. 그러다 최근 환경, 인권 등 어젠다가 들어오면서 공급망 문제가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과제다. 두 번째는 인권이다. 유럽에서 인권 실사가 의무화되면, 유럽 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에도 인권 경영 체계와 인권 실사 수행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세 번째는 통상이다. 한국은 국제 거래 비중이 매우 높는데, 국제시장에서 ESG와 관련한 통상 규제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과제를 빠르게 준비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들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기에 우리도 매우 신경 쓰는 문제다.”

### 향후 목표는.

“법을 영역을 넘어 경영 자문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컨설팅 조직으로 키우는 것이 우리 목표다. 장기적으로는 ESG 컨설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해외시장에서도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싶다. 올하는 한국 기업이 겪는 통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상자문센터도 만들었다. 출범 초기에는 ESG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되, 장기적으로 보호무역 분야를 두루 다룰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ESG 생태계를 잘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 지평 ESG센터가 기여하고 싶다.”

경영 및 실사 방법론에 대한 경영 연구도 진행했다.

한편, 지평은 국내 로펌 중에서도 ESG 경영 실천에 적극적인 곳으로 꼽힌다. 2015년 공익활동 보고서에 처음으로 사회적책임 이행 항목을 넣었고, 2016년에는 사회적책임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내 로펌

중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펴내는 곳은 아직까지 지평이 유일하다. 지평 관계자는 “인권 실사가 로펌의 중요한 업무로 등장했는데,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우리 로펌 내부적으로도 해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몇 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인권 실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